

배포 일시	2022. 8. 23.(화)			
담당 부서	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5045)
		담당자	서기관 사무관	정경인 (044-201-5046) 박성호 (044-201-5056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와 광역교통축 지정 등을 통해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

< 보도내용('22. 8. 23. 뉴스핌) >

- ◆ 광역교통축 지정 ‘육상옥 대책’ 논란... 128개 개선대책 실태파악도 안돼
 - 정부는 내년부터 광역교통축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중복, 추가적인 대책 마련 실효성 의문
 - 광역교통개선대책 128개 수립해놓고 관리 미흡, 특별대책지구도 지지부진

□ 국토교통부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)는 지금까지 수립된 128개 지구 전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, 광역교통 불편사항 및 완화방안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, 시급한 교통개선이 필요한 문제지구에 대한 지구별 맞춤형 교통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('22.9~'23.上)입니다.

- 아울러,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수원 호매실, 화성 동탄2지구는 9월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, 평택고덕의 경우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.

□ 한편, 광역교통축은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 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,

- 대광위는 향후 광역교통축 지정과 축별 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교통축에 대한 혼잡 개선방안과 전수조사를 통해 도출된 교통 보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해 국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.